

해남군, 결식 아동 추가 발굴해 사각지대 없앤다

3월15일까지 지원방안 마련 1일1식 8000원 도시락 지원

해남군이 오는 3월15일까지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3월15일까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중점 발굴하기 위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

동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해남군의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은 260여 명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선정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일제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

으로 1일 1식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이나 부식 등을 배달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급식 신청은 희망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이웃주민, 사회복지사 등 주변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온라인 등으로 연중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지난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

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해남 지역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함평군, 4년 만에 재개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가 함평군 월야면에서 4년 만에 재개된다.

함평군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가 오는 2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함평군 월야면이 주최하고 월야면면영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면 시가지에서 액운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야농약단의 ‘길굿’을 시작으로 월야면민의 변영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오곡밥 나눔’,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순서로 진행한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020년부터 취소돼 4년 만에 재개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장점검 영산강환경청, 2월부터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영산강·섬진강 녹조 예방을 위해 2월부터 비점 오염원 설치 사업장 303곳을 지도·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청은 최근 3년 내에 위반 경향이 있거나 신규 사업장 등 47곳은 현장 점검을 한다. 나머지 256곳은 사업장 스스로 점검한다.

환경청은 설치 신고 시 사업장이 작성한 오염 저감 계획서 이행 여부를 살핀다.

비점 오염원은 도로·농경지·공사장 등 여러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말한다.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류시설·인공습지·여과형시설 등 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진용 기자



무안군, 봄철 산불예방 대비태세 돌입

무안군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무안군 제공

청자축제 먹거리타운 입점 모집 강진군, 2월3일까지 접수

강진군은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강진음식 먹거리타운’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월23일부터 3월1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일반음식점 3개소, 분식취급업소 1개소를 모집하며 강진군 관내·외 지역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 겨울철 관광객들의 입맛을 잡을 메뉴와 황제라면, 떡볶이, 어묵 등 MZ세대들을 겨냥한 메뉴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입점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부스임대료 120만원을 강진군축제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3일까지 (사)한국외식업강진군지부 사무실 또는 강진군 문화관광실에 접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 무안군, 기업당 최대 200만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은 ‘무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1개 기업당 연간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인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34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2월17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행연 기자

함평군, 580억 편성 어르신 복지 증진 총력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등

함평군이 올해 노인복지 예산 580억원을 편성, 어르신 복지 증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AI반려 로봇 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5.1% 인상됨에 따라 노인 1인가구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 받는다.

경로당 지원도 확대한다.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가정에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한다.

어르신들의안전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1.3% 증가한 1670명에게 노인일자리 제공한다

경로식당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해 영양섭취를 돕는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년대비 10만원 증가된 20만원을 지원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암군, 스마트강소농 육성 스타트

내달 24일까지 모집

영암군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월 24일까지 ‘스마트강소농’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강소농이란 디지털 장비,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스타트 스마트강소농을 시작으로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역량에 기반해 최대 3년간 성장, 으뜸 스마트강소농으로 3단계 성장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강소농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군은 올해 스마트농업 도입에 필요한

기초역량 함양을 목표로 스마트 농업기술, 스마트 농업경영, 스마트 농산물마케팅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과정에는 스마트 농업 교육장을 활용한 재배실습 및 선도농가 견학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강소농 참여는 기존 강소농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해남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대여 기간 최대 6개월

해남군은 임산부 및 태아의 교통안전을 위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배를 압박하는 벨트 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돼 압박감을 줄이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임산부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안전띠다.

차량 의자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떼어내고 일반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남이고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사용 후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해남군은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난임 부부에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시술종류 및 연령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청소년 수당 5만원 지급 진도군, 하반기부터 1300명

진도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3세~18세 청소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1년 기준 최대 60만원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서점,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승인과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매월 5만원씩 바우처를 제공, 청소년들이 문화·취미활동 등에 참여해 문화적 박탈감 해소를 비롯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청소년들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농기계 활용 제설작업 봉사활동 신안군 천사영농조합법인



신안군 천사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배)은 군민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활동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천사영농조합법인은 트랙터 농기계를 꾸려 지도읍 교회, 학교, 관공서 등 밀집 지역 골목 제설 활동을 펼쳤다.

당초 천사영농조합법인은 콤팩트 등 농기계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번기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지원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상배 신안군천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봉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